

유명론적 개별자론은 심신 이론인가:

백도형의 『심신 문제』에 대한 질문[†]

원 치 욱[‡]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의 문제는 심리철학, 형이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백도형의 『심신 문제』는 이 지난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왔던 그의 오랜 여정의 결과물이다. 이 저서에서 백도형은 종래의 심신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토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안적 입장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을 제안한다. 그의 4차원 개별자론은 심신 유명론의 관점에서 데이빗슨의 사건 개별자론을 발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 필자는 그의 유명론적 개별자론을 개괄하고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개별자론이 어떤 점에서 그 자체로는 실질적 심신 이론이 되기에 부족해 보이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주요어】 심신 문제, 유명론적 개별자론, 백도형

[†] 이 논문은 2017년도 광주과학기술원의 재원으로 학부기본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광주과학기술원, cwon@gist.ac.kr

1.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

잘 알려진 대로 심신 문제에 대한 기존의 물리주의 입장들, 가령, 환원주의, 제거주의, 비환원적 물리주의 등은 각각 그 고유의 어려움들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들은, 백도형이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듯,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가정하는데, 저자는 바로 이것이 심신 문제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라고 진단한다. “심신 속성을 술어라는 언어 차원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존재 범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이 심신 문제 어려움의 근원이 된다”¹⁾는 것이다. 가령, 현대의 주류 견해라 할 수 있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관련해 저자는 속성 실재론을 전제하는 속성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한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김재권이 제기하는 인과적 배제 논증의 비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²⁾ 저자는 “비환원주의 입장 중 속성 유명론을 따는 데이빗슨의 경우에만 정신 인과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데이빗슨의 심신 이론을 유명론적으로 해석했을 때” 심신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저자의 4차원 개별자론은 도널드 데이빗슨의 심신 이론 및 사건 개별자론을 유명론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먼저 저자의 4차원 개별자론은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속성을 술어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유명론이다.⁵⁾ 또한 4차원 개별자론이 상정하는 기본적인 존재자는, 데이빗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개별자로서의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4차원 개별자로서 시공간 좌표 상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있지만 점과 같은 개별자로 시간상의 지속이나 반복이 없는 일회적인 사건이다”.⁶⁾ 이러한 입장에 의하

1) 백도형 (2014), p. 356.

2) Kim (1998, 2005).

3) 백도형 (2014), p. 356.

4) Davidson (1980).

5) 백도형 (2014), p. 367.

6) Ibid., p. 382.

면, 정신적/물리적인 것의 구분은 개념상의 구분일 뿐, 존재 차원의 구분의 아니다. 4차원 개별자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는다. 저자의 의하면, “개별자 자체는 정신적, 물리적 등등의 속성을 갖지 않으며... 서술 주체의 관점에 따라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술어화될 수 있고 그 경우 각각 물리 사건, 정신 사건이 된다.”⁷⁾

이러한 입장은 심신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가?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정신 속성이 부수 현상에 불과하거나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이 되어버리는 “존재론적 부조리”⁸⁾에 빠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신 유명론에서 속성이란 술어에 의한 서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명론적 사건 개념하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정신 사건도 물리 사건도 될 수 있으므로 과잉 결정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구체적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신 인과의 문제의 경우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옹호하는 속성 이원론은 정신 인과의 두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원 개별자론을 토대로 하는 심신 유명론은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이라는 ‘속성’이 개념적 범주이고 술어에 의한 서술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속성 이원론이 갖는 형이상학적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미 보았듯이 개별자는 다양하게 술어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에서는 과학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속성 이원론 등 비환원주의가 갖는 정신 인과의 문제의 어려움은 갖지 않는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상이한 서술들이 가능한 것처럼 각 이론 계층에서는 그 이론 계층에 고유한 법칙을 통해 각각 나름의 인과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 4차원 개별자론의 ‘인과’는 언어와 서술 차원의 법칙과 설명이지, 자연의 필연성과 같은 존재 차원에 내재된 인과성과 필연성이 아니므로 부수 현상론 시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백도형, 2014, pp. 389-91)

간단히 말하면, 속성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속성 이원론자들에게 제

7) Ibid., p. 381.

8) Ibid., p. 370.

9) Ibid., p. 370.

기되는 문제가 4차원 개별자론에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정신 인과의 문제는 해소되었는가?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이 속성 실재론으로서의 속성 이원론이 맞닥뜨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형태의 부수 현상론 시비를 겪지 않으리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차원 개별자론이 정신 인과의 문제를 정말 해결 혹은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해결한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신 인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애초에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신 인과의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4차원 개별자론이 부수현상론 시비를 겪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애초에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먼저 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지 보자.

먼저 백도형의 입장이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단순히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저자가 강조하듯 그의 입장은 제거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저자가 속성 실재론자들이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받아들일 때와 같은 의미에서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아니다. 존재 차원의 정신적 “속성”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의 입장은 데이빗슨과도 다르다. 잘 알려져 있듯, 데이빗슨은 개별자로서의 정신 사건과 물리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받아들인다.¹⁰⁾ 그러나 또한 잘 알려져 있듯,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주장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형/종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의 인과적 힘인데 반해, 데이빗슨의 경우 유형/종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은 아무런 인과적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데이빗슨에게 정신 인과의 실재성은 명목뿐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¹¹⁾ 백도형은 데이빗슨보다 더 명시적 방식으로 유명론적 방향으로

¹⁰⁾ Davidson (1980).

¹¹⁾ Honderich (1982), pp. 59-64, Kim (1984), pp. 257-270, Dretske (1989),

나아간다. 데이빗슨의 경우 개별자들 사이의 인과로서 정신 인과는 인정하지만, 저자의 경우 엄밀히 말해선 (즉, 언어 차원이 아닌 존재 차원에선) 개별자들 사이의 인과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4차원 개별자들은, 그들이 그 자체로는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듯, “그 자체로는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¹²⁾ 저자에 의하면, “4차원 개별자로서의 사건은 서술 주체의 관점과 배경 이론을 통해 서술되기 이전에는 사건들 간에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 독립적인 개별자다.”¹³⁾ 만약 개별자들 사이의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신 인과의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고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이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서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자의 입장은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신 인과 문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어떤 의미에서 저자가 정신 인과의 실재성을 인정하는지 보자. 저자에 의하면, 간단히 말해, 인과는 언어/개념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4차원 개별자들은 그 자체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지만, 그것들이 “언어 차원의 서술을 통해 배경 이론의 인과법칙에 의해 자리매김되어 인과를 이루는 것이다.”¹⁴⁾ 저자에 의하면, “인과성 자체가 언어적인 인과법칙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언어 차원에서 규정된 관계로서의 정신 인과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 인과는 실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속성 이원론에게 제기되었던 것과 똑같은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혹은 비슷한 정신 인과 시비를 겪지 않을까? 정신 인과와 관련해 속성 이원론은 인과적 배제의 문제, 즉 정신 사건의 물리적 결과는 항상 두 충분 원인을 갖는다는 점에서

pp. 1-15.

¹²⁾ 백도형 (2014), p. 386.

¹³⁾ Ibid., p. 383.

¹⁴⁾ Ibid., p. 383.

과잉결정 되어 보인다는 문제를 겪는다. 4차원 개별자론은 이러한 “인과적” 배제의 문제는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로의 (언어 차원의) “설명적” 배제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물리적 사건(물리적 개념에 의해 술어화된 사건)은 보통 하나의 충분한 물리적 설명(물리적 개념에 의한 설명)을 갖는데, 왜 유독 정신 사건이 결부된 사례에서는 두 가지 충분한 설명이 존재하는가? 이는 과잉 인과(혹은 과잉 설명?)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는가? 어쩌면 4차원 개별자론 내에서는 설명적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서로 배제/경쟁하지 않는 두 설명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인지가 실질적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 인과의 문제는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단지 보류된 것일 뿐 아닌가?

3. 4차원 개별자론은 심신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자는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이 과연 물리주의인지 물으면서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답변은 그것이 물리주의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4차원 개별자들은 배경 이론을 통해 물리적인 것으로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서술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물리적인 것도 비물리적인 것도 아니다. 저자는 말하길, 그것들은 “특정한 인식 관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는 술어화될 수 없기 때문에 무규정적인, 하지만 향후 언어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¹⁵⁾ 이러한 4차원 개별자론은 러셀 식의 중립적 일원론을 연상시키는데, 그 자체로는 물리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비물리주의를 함축하지도 않는다).

저자의 두번째 답변은 4차원 개별자론은 원한다면 (혹은 필요하다면) 물리주의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4차원 개별자론이

¹⁵⁾ Ibid., p. 395.

리는 최소 실재론에 물리주의 패러다임을 언어 차원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⁶⁾ 저자가 의미하는 물리주의는 “언어 차원의 물리주의”로, 그것은 인과적 폐쇄성/완전성의 아이디어, 즉 “**물리 언어의 전 세계에 대한 포괄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언어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물리주의”이다.¹⁷⁾ 저자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인과적 폐쇄성/완전성뿐만 아니라 수반 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차원 개별자론은 물리 언어와 정신 언어의 관계에 대해 모종의 공변 혹은 의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원 개별자론은 물리주의와 양립가능하며,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저자는 또한 4차원 개별자론이 생태주의 혹은 유기체론과도 양립 가능함을 언급한다).

그러나 4차원 개별자론이 물리주의, 비물리주의와 모두 양립가능하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4차원 개별자론+물리주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4차원 개별자론+비물리주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만약 전자라면 정확히 어떤 종류의 물리주의가 4차원 개별자론에 추가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다. 즉, 4차원 개별자론 하에서 심신 관계에 대해 어떤 (물리주의적 혹은 비물리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실질적 쟁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심신 관계를 둘러싼 기존의 형이상학적 쟁점들이 4차원 개별자론 내에서 다시 제기되는 셈이다. 가령, 물리적 술어의 집합이 다른 술어와 달리 왜 설명적으로 닫혀 있는지, 어떻게 정신적 사건이 또한 물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물리 술어와 정신 술어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공변/의존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러한 공변/의존 관계가 우리의 물리주의 직관을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등등의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 실질적 쟁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즉 우리가 속성 실재론을 전제하고 물었던 심신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4차원 개별자론 내에서도 여전히 유명론적으로 고스란히 다시 제기된다면, 4차원 개별자론은 그 자체로는 심신 문제에 대한 “대안적”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

¹⁶⁾ Ibid., p. 394.

¹⁷⁾ Ibid., p. 394 (강조는 원저자).

는 마치 데이빗슨의 개별자 물리주의가 처음에는 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입장으로 환영받았지만, 사실은 김재권이 지적하듯, 그의 무법칙적 일원론 자체는 물리주의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심신 관계에 대한 실질적 이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과 유사하다. 4차원 개별자론 내에서도 심신 문제가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단지 미루어진 것일 뿐 아닌가?

우리가 심신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유형으로서의 정신적인 것과 유형으로서의 물리적인 것 사이의 관계이다. 즉, 유명론적으로 말하자면, 물리적 개념/술어와 정신적 개념/술어와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 대해 데이빗슨과 마찬가지로 백도형은 아무런 실질적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데이빗슨이 심신 관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심신 수반과 일관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물리주의적 개입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데이빗슨의 입장을 심신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 이론으로 (즉 일종의 물리주의의 한 입장으로) 여기게 해준 것은 무법칙론이나 유명론이 아니라 수반이라는 것이다(잘 알려져 있듯, 심적인 것의 무법칙론 하에서 그의 수반은 약수반일 수밖에 없고, 약수반은 물리주의이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점에서 그의 개별자 물리주의는 결국 이름뿐인 물리주의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저자 역시 심신 관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정신, 물리 술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4차원 개별자론에서 심신 간의 의존 관계는 단순한 외연적인 포함 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¹⁸⁾ 즉, 데이빗슨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김재권이 잘 지적한 바 있듯,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해명이 될 수 없다.¹⁹⁾ 모든 색깔을 갖는 것은 모양을 갖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색깔과 모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4차원 개별자론은, 정신적 사건들과 물리

¹⁸⁾ Ibid., p. 391.

¹⁹⁾ Kim (1998), p. 5.

적 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명론적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적 술어를 만족시킨다는 것과 물리적 술어를 만족시킨다는 것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해명이 없는 셈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는 심신 문제에 대한 실질적 입장은 아닌 셈이다.

어쩌면 이상의 논점들은 저자가 모두 내다보고 있었던 것들일지 모른다. 사실 4차원 개별자론을 통해 저자는 심신 관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이론들이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형이상학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4차원 개별자론이라는 유명론적 틀 내에서 심신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혹은 새로운 여러 쟁점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단지 저자가 그의 저서에서 다루고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반적 교훈을 내놓자면 이렇다. 우리의 상식과 직관이 어떤 철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 취할 수 있는 일반적 전략 중의 하나는 그 상식과 직관이 기초하는 개념을 거부하는 대안적 개념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대응이 가지는 위험성은 이러한 대응이 많은 경우 해당 문제를 진정 해소하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 대안적 개념 틀은 그 문제의 진술을 어렵게 할 뿐, 해결해야 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진 않는다. 그 문제는 새로운 개념 틀 내에서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고, 혹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그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혹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백도형 (2014), 『심신 문제』, 아카넷.

Davidson, D. (1980), “Mental Events,” in his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7-25.

Dretske, F. (1989), “Reasons and Causes,”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pp. 1-15.

Honderich, T. (1982), “The Argument for Anomalous Monism,” *Analysis* 42: pp. 59-64.

Kim, J. (1984), “Epiphenomenal and Supervenient Caus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IX: pp. 257-270.

_____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The MIT Press.

_____ (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17. 11. 05.
심사 완료일	2017. 11. 13.
게재 확정일	2017. 11. 20.

Is Nominalist Particularism a Mind-body Theory?

Chiwook Won

In his recent book *The Mind-body Problem*, To-hyung Paik criticizes various extant theories of the mind-body relation, revealing their basic assumptions and commitments, and puts forward his own 4-dimensional, nominalist particularism about the mind. In this note, I briefly review his account and raise several questions. In particular, I discuss why his view is unsatisfying as a substantive, explanatory account of the mind-body relation.

Keywords: mind-body problem, nominalist particularism,
To-hyung Paik